

“학교 운동부 폭행·인권침해 전수조사해야”

광주·전남 잇단 폭력·성추행 사건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대책 촉구
전남체육회 스포츠 인권실태 조사

광주·전남 체육계에서 잇따라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가 하면 나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내에서는 지도자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는 등 폭력사태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에서는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도자 A씨는 나주의 한 여고 운동부 소속 여고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료 운동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다. 충장중 야구부 3학년인 B군은 동료 야구부 학생 8명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것이다.

또래 야구부원들은 다른 중학교에서 전학 온 B군을 상대로 운동 중 뒤에서 공을 던져 맞고 욕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갖은 폭력을 휘둘렀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주지역 몇몇 학교 운동부에서 폭행·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엘리트 체육의 진원지인 체육중·고교 등 특수목적학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며 “학교 운동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생활체육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포츠대회의 서열 위주 포상 금지

와 감독, 코치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청 차원 인권교육 실시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체육회에 폭행, 인권침해 등 폭력 발생 시 가해자를 영구제명하는 등 중징계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각종 교육과 스포츠인권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체육회는 인권 실태 조사반을 꾸려 전남도 내 운동부에 대한 스포츠 인권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체육계 선수(성)폭행 사건과 관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조사반은 직접 팀에 찾아가 선수들과 심층면담 및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 ‘스타 창업가’ 발굴 나섰다

창업동아리 20팀 선발
아이템 개발·창업캠프 지원

광주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융합형 스타 창업가 발굴을 위해 창업동아리를 모집해 지원한다. 광주대창업교육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에 관심 높은 재학생이 참여하는 ‘2020 GU-창업동아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동아리 20팀을 선발하며, 아이템개발을 위한 활동과 아이템 개발을 위한 멘토링, 동아리 실 설치,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동아리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법적 권리로 등록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융합형 스타 창업가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광주지역 대학 유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과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비용과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 중심대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희홍 기자 chae@

광주 동구 계림8·내남지구
어린이 집 2곳 위탁 협약

광주시 동구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2곳과 위탁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계림8구역 광주그랜드센트럴아파트 내 구립어린이집과 내남지구 진아리채2차아파트 내 구립어린이집 2개소와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진아리채2차아파트 어린이집은 오는 9월 중에, 광주그랜드센트럴아파트 어린이집은 10월 중 개원한다. 지난 5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에 나선 동구는 보육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입주대표회의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산한 선별진료소 광주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틀 거의 발생하지 않자 20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모여 림만에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시·군 교육청에 인력 지원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등 6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담 공무원 1명씩을 배정한다. 나머지 16개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올해 신규인용후보자로 뽑힌 실무수습 공무원 1명씩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정하고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포충로에 수춘천 가로 지르는 인도교 만든다

길이 23.5m, 폭 4m 규모 조성
광주 남구 양과동의 빗고을 농촌테마공원과 공예창작촌 인근에 수춘천을 가로지르는 친환경 인도교가 건립된다. 그동안 남구 주민들은 빗고을 농촌테마공원이나 공예창작촌 관광을 마친 뒤 다른 시설로 이동할 경우 위험천만한 도로 갓길을 지나쳐야 했으나, 이 인도교가 설치되면 포충로 앞에 흐르고 있는

수춘천을 통해 곧바로 횡단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빗고을 농촌테마공원 인근 수춘천에서 사업비 5억여원 가량을 투입해 길이 23.5m, 폭 4m 규모의 포충로 횡단 인도교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빗고을 농촌테마공원과 공예창작촌간 연결로가 없어 관광객 등을 포함한 보행자들의 효율적인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조성되는 인도교는 수춘천 수변공간과 조망권, 생태복원 하천의 특수성을 감안해 친환경 다리로 건립된다. 특히 무채색 계통의 색상과 목재 색상을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스틸 소재를 적극 활용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설계공법을 도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리원들 방역 업무 노동강도 완화 대책 촉구

학교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
광주시교육청서 기자회견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들이 코로나19로 방역 작업이 추가돼 기존보다 노동강도가 높아졌으며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급식실 조리원들이 각종 방역 업무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급식 조합원 452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식실 노동강도 실태 조사’ 결과 76.5%가 코로나19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또 교육 당국이 대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급식실 조리원들이 아파도 병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조리원들이 여름철에 50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급식실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바람에 부산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조리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저출생 대응 ‘예비맘 우선 배려 서비스’

광주시 북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2020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맘 우선 배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북구는 임신부와 유아 동반자가 대기 없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0곳에 ‘우선 배려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배려대상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희망 기관 수요조사 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를 마친 주민에게 현관문에 부착할 수 있는 ‘초인종 자제’ 자석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주민 공감형 배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와 공감에 바탕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저출생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등 결혼, 출산, 가족친화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